

# 차에서 집 에어컨 켜고 스마트폰으로 차 세팅 맘대로

승용차 이동수단서 스마트폰·사물인터넷 연계 컴퓨터 구실까지  
기아차 'K7 프리미어' 음성명령 통해 조명·보일러 등 조절 가능  
현대·기아차, 스마트폰서 주행모드·응답성 등 설정 기능 개발

승용차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고유의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사물인터넷과 연계돼 생활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리모컨 역할도 한다. 원격조정 기술은 1980년대 미국 드라마 '전격 Z작전'의 '키트'를 보는 듯하다.

◇차에서 집안 에어컨 켜다-기아차 'K7 프리미어'

'K7 프리미어'는 차안에서 음성명령으로 집안 에어컨을 미리 켜두거나 가스밸브를 잠글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준대형 세단 'K7 프리미어'에 '카투홈(Car to Home)'과 '자연의 소리' 기능을 탑재했다.

카투홈은 차 안에서 집의 조명, 플러그, 에어컨, 보일러, 가스차단기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아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UVO(유보)의 스마트폰 앱에서 홈 IoT 서비스 계정을 연동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KT, SK텔레콤, 현대건설 하이오티(Hi-oT), 현대오트모바일 등과 제휴했다.

운전 중에는 음성명령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스티어링휠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카투홈, 가스차단기 잠기줘', '카투홈, 에어컨 켜줘' 등이라고 말하면 된다.

거꾸로 '홈투카' 서비스도 된다.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로 시동, 공조, 문잠금, 비상등, 경적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홈투카 기능은 지난해 출시된 스포티지 더 볼드 모델에 적용됐다.

기아차는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 카투홈과 홈투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로 기존 유보 서비스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7 프리미어에는 운전자 심리안정을 돕

는 '자연의 소리' 기능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카페,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 등 6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생기 넘치는 숲'은 미국 플로리다 웨키와 국립공원에서 소리를 녹음했고, '잔잔한 파도'는 울릉리 해수욕장 해변에서 채취한 음원이다.

◇스마트폰에서 내 차 세팅을 맘대로  
현대·기아차는 최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의 주행모드와 응답성 등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시트 조절 등 일부 설정을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자동차의 설정 전반을 제어하는 기술은 처음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 운전감 등을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지능형 전기차 성능조절' 기술이다. '모바일 기반 전기차 튜업(tune-up)'이라 이름 붙인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최대 7가지 차량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전기차의 ▲모터 최대 토크 ▲발전기 속도-감속 감도 ▲회생제동량 ▲최고속도 제한 ▲응답성 ▲냉·난방 등 에너지 조절 등이다.

이는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차량-사물간 연결(V2X) 기술의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설정은 차량에 달린 설정 기능을 통해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고, 탑승자의 선호에 따라 사전설정(프리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초 'CES 2019'에서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ee)'라는 디자인 철학을 선보인 현대차그룹은 이를 디자인이나 차량 내부 공간을 넘어 자동차의 성능 설정까지 확장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모비스, 지난해 미래차기술 등 특허 640건 등록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자율주행-커넥티드비타-전동화 등 미래차 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 640건을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특허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요소기술인 후측방 레이더와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후측방 레이더는 현대모비스가 독자기

술로 개발한 것으로 해외 경쟁사 대비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는 다른 운전자 지원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현대모비스가 처음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2025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보고서에 담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카투홈'과 '자연의 소리' 등 신기술이 탑재된 기아차 'K7 프리미어'.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기반 전기차 튜업 기술.

## 벤츠, 4개월만에 '프리미엄 빅3' 선두 복귀

5월 판매량 6092대 1위  
제네시스·BMW 제쳐

국내 승용차 프리미엄 빅3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5월 판매량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지였다. 제네시스, BMW를 제치고 4개월 만의 선두 복귀다.

빅3 경쟁의 포인트는 물량 확보였다. 벤츠는 올 초부터 지속됐던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 판매실적을 지난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BMW는 여전히 3시리즈 등 주력모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제네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0% 판매량을 늘렸지만 벤츠 선전에 밀리며 아쉬운 2위에 머물렀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5월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벤츠 E클래스

승용차는 총 13만12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3% 늘어난 6092대를 기록했다. 벤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6000대 이상 판매되며 프리미엄 빅3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2월 주요 모델의 물량 부족 문제를 겪으며 3611대까지 추락, 2위로 밀려났다. 4월부터 물량 적체

현상을 극복한 E클래스 주요 라인업 덕분에 월간 6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회복했다. BMW는 여전히 물량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BMW는 지난달 3383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5.22% 판매량이 줄었다. 지난 3월 전 세계 동시 출시한 3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출고 지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올 초 출시한 '뉴 X5' '뉴 X7' 등의 물량도 부족했다.

프리미엄 빅3 중 5월 판매량 2위는 5721대를 기록한 제네시스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19.71% 늘어 빅3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을 거친 G90이 2204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9% 성장세를 보였다.

프리미엄 빅3 중 5월 판매량 2위는 5721대를 기록한 제네시스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19.71% 늘어 빅3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을 거친 G90이 2204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9% 성장세를 보였다.

프리미엄 빅3 중 5월 판매량 2위는 5721대를 기록한 제네시스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19.71% 늘어 빅3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을 거친 G90이 2204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9% 성장세를 보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스위스 경찰차 선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이 스위스 북부 생 갈렌 주(세) 경찰차로 선정됐다.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생 갈렌 주 경찰이 마련한 조건과 테스트를 통과했다. 현대차는 스위스 생 갈렌 주 경찰에 지난해까지 '코나 일렉트릭' 13대를 공급했다. <현대차 제공>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